

치 사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지난 결실의 토대위에 더 나은 발전과 성취를 위해 희망을 시간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절기에 우리 종단 사업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도반HC’의 창립을 선포하게 되어 반가움이 가득하며, 축하와 격려의 마음으로 함께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20여년 전, ‘조계종출판사’라는 조그만 씨앗을 뿌렸고, 갓은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자라나 훌륭한 묘목이 되었으며, ‘주식회사’로 옮겨 심은 지 7년이 지난 오늘, 규모가 3배로 커진 건장한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이렇듯 종단의 원력과 더불어 성장을 거듭한 조계종출판사는 풍요로운 결실과 향기로운 회향을 위해, ‘도반HC’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자, 종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의미를 더욱 새기어 ‘일하는 것 또한 수행의 연속’이라고 여기신 백장선사의 가르침처럼, 꾸준히 정진의 시간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도 축원의 마음과 더불어 경책의 조언으로 항상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도반HC는 모두의 염원과 같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종단의 튼실한 버팀목이자 모두에게 선선한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고심하면서 울창한 숲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심을 다해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오늘의 마음가짐이 헛되지 않도록 주어진 소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니다.

오랫동안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사부대중께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오늘을 계기로 모든 성취를 항상 유익하게 나누며, 이웃과 사회에 언제나처럼 널리 회향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3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주)도반HC 대표이사 자승